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May 2025 Issue | Vol. 30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외국인 투자 신청, 82% 급감
— page 1-2
- 삼성, 전기요금 협의 후 투자 결정 예정
— page 2
- 필리핀 에너지 산업, 3조 3천억
페소로 성장
— page 3
- 중국·미국 통상대표 회동 속 APEC,
관세가 무역에 미칠 영향 경고
— page 3-4
- 필리핀-한국, 핵심 광물 및 전기차
관련 협정 체결 — page 4
-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 내 유지 전망
— page 5
- [Photo Highlights] 2025 JFC 클락
국제 미서 —page 6

외국인 투자 신청, 82% 급감

May 16,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글로벌 무역 역풍 속에 신중해진 투자자들

마닐라, 필리핀 — 투자 진흥기관(IPA)이 승인한 외국인 투자 약정이 글로벌 및 국내의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올해 1분기에 전년 대비 82% 급감했다.

필리핀 통계청(PSA)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IPA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 총액은 279억9천만 페소로, 2024년 같은 기간의 1,552억6천만 페소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투자는 다음의 투자 진흥기관(IPA)에 의해 승인되었다: 바탄자유항만청(Authority of the Freeport Area of Bataan),

기지전환개발청(Bases Conversion and Development Authority),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s), 클락개발공사(Clark Development Corp.), 카가얀경제자유구역청(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필리핀경제자유구역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그리고 수빅만관리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이들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총 19,303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Data from the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yesterday showed that total foreign investments registered with IPAs amounted to P27.99 billion from January to March, down from P155.26 billion in the same period in 2024.

STAR / File

필리핀개발연구원(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PIDS)의 선임연구원 존 파울로 리베라(John Paolo Rivera)는 이메일을 통해, 총 승인 외국인 투자의 급감은 국내외에서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관련된 최근의 관세 갈등 등으로 무역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중기적인 재정 정책 경로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리베라는 말했다.

국내적으로는, 리베라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5.4%에 그친 점과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이 자금 투입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분기 외국인 투자 약정의 최대 출처국은 한국으로, 총 123억6천만 페소를 기록하며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미국이 30억8천만 페소(11%), 중국이 28억8천만 페소(10.3%)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 부문이 총 107억9천만 페소로 외국인 투자의 38.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제조업이 61억4천만 페소(21.9%)로 2위, 행정 및 지원 서비스 활동 부문이 53억5천만 페소(19.1%)로 3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중부 루손이 149억 페소(전체의 53.3%)로 외국인 투자 약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도권(National Capital Region)이 67억8천만 페소(24.2%), 칼라바르손(CALABARZON)이 39억5천만 페소(14.1%)로 뒤를 이었다.

IPA가 승인한 외국 및 국내 투자 총액은 1분기에 1,819억3천만 페소로, 전년 동기(3,232억7천만 페소) 대비 43.7% 감소했다.

이들 투자는 총 31,848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예상된 33,431개보다 4.7% 낮은 수치다. [Cont. page 2]

외국인 투자 신청, 82% 급감

[Cont. from page 1]

1분기 승인된 전체 투자 중 필리핀 국민의 투자 비중은 84.6%로, 총 1,539억4천만 페소에 달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IPA가 승인한 전체 투자 중 가장 큰 비중은 전기, 가스, 증기 및 냉난방 공급 산업으로, 총 619억8천만 페소로 전체의 34.1%를 차지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리베라는 밝혔다.

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정부가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며 세계 개혁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기업 환경 개선 문제를 해결할 경우 회복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무역 마찰이 심화되거나 규제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투자 유입은 계속 부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과정은 핵심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고, 투자 진흥기관 간의 메시지 및 지원 활동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리베라는 덧붙였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5/16/2443378/foreign-investment-pledges-drop-82>

삼성, 전기요금 협의 후 투자 결정 예정

May 15,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필리핀경제자유구역청(PEZA)은 현재 정부가 삼성전자와 전기요금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 협상이 한국 다국적 기업의 필리핀 내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레소 오. 판가 PEZA 청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요금이며, 현재 그 부분을 조율 중이다. 다만 재정 인센티브는 이미 확정된 상태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 중국, 한국에서 적용되는 현재 요금들을 제시했으며, 이들 요금이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요금을 산출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삼성이 원하는 전기요금 인하 폭에 대해 묻자, 그는 “그들은 합리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게 전부다. 우리도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기관도 요금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이 요청하는 다른 사항들은 행정적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 문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판가 청장에 따르면, 이번 신규 투자는 라구나 칼람바 프리미어 인더스트리얼 파크웨이에서 삼성의 사업 확장에 해당한다.

“그들은 PEZA와 함께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층 세라믹 커패시터(MLCC)를 계속 제조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확장 사업은 다층(다층식) 시설 건설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500억 페소 미만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업 회복 및 세계 인센티브법(CREATE MORE Act)’에 따라 관리되며, 500억 페소 이상 투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국가 경제 발전의 이익”을 위해 500억 페소 이상 프로젝트에 대해 맞춤형 재정 및 비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판가 청장에 따르면, 지정학적 사건들로 인해 미국, 한국, 중국의 많은 투자가 필리핀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는 중국 투자자들의 활동이 올해 1~4월 일본 투자자 활동을 앞질렀다고 언급했다.

4월까지 4개월간 PEZA가 승인한 투자 규모는 635억 2,300만 페소로, 전년 대비 112.06%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투자 최대 출처국은 한국으로 104억 5천만 페소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25억 3천만 페소), 중국(21억 7천만 페소), 일본(16억 6천만 페소), 홍콩(11억 4천만 페소), 싱가포르(11억 페소)가 뒤를 이었다.

“올해 초부터 이 같은 투자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지속하기를 기대한다” 고 그는 말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5/15/672836/samsung-investment-decision-awaiting-talks-on-power-rates/>

필리핀 에너지 산업, 3조 3천억 페소로 성장

May 15, 2025 | Kris Crismundo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필리핀 에너지 부문이 2022년 6,300억 페소에서 3조 3천억 페소 규모로 성장했다고 에너지부(DOE)가 밝혔다.

DOE의 라파엘 로틸라 장관은 목요일, 이 수치는 2025년 3월 기준 에너지규제위원회(ERC)의 최신 감사 재무제표를 포함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그그 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수치는 필리핀 전력 부문이 얼마나 크고, 건강하며, 활기찬지를 더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File photo)

“이 수치는 물론, 에너지 부문 전체가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틸라 장관은 산업의 가치가 발전, 송전, 배전 등 에너지 자산의 증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전력 부문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침체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에너지의 1인당 소비가 낮은 한, 우리 경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로틸라 장관은 연간 6% 성장하는 경제를 유지하려면 전력 부문도 약 5.2%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 요금을 더 낮추기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송전망 투자, 그리고 오지 지역에서는 디젤을 태양광이나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공급 안정성과 가격 측면에서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자국산 에너지원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로틸라 장관은 또한 필리핀 국가전력망공사(National Grid Corporation of the Philippines)의 사업들이 송전 병목 현상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많은 전력 공급이 가능해지고 송전 제약이 줄어들수록, 전기 요금은 실제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50190](https://www.pna.gov.ph/articles/1250190)

중국·미국 통상대표 회동 속 APEC, 관세가 무역에 미칠 영향 경고

May 16, 2025 | Malaya Business Insight



서귀포, 대한민국 (로이터)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목요일,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올해 역내 수출 증가율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대표들이 회의 중 별도로 만난 가운데 발표되었다.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APEC은 한국 제주도에서 열린 2025년 통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역 동향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역내 수출이 작년 5.7% 증가에 비해 단 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역내 경제성장률 전망도 기존 3.3%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APEC은 성명에서 “특히 제조업 및 소비재 분야에서 외부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APEC 전반의 무역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 관련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비스 무역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은 APEC 회원국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로 인해 APEC 역내 평균 관세율은 1989년 APEC이 비구속 경제 포럼으로 설립되었을 당시의 17%에서 2021년에는 5.3%까지 하락했다. 이 기간 동안 상품 무역은 9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세계 최대 경제국 간의 무역 마찰 해소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미국 통상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회의 중 중국 통상특사 리청강과 별도로 회담을 가졌다고 정인호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언론에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회동은 그리어와 리청강이 5월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첫 대면 회담에서 고율 관세 인하에 합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Cont. page 4]

중국·미국 통상대표 회동 속 APEC, 관세가 무역에 미칠 영향 경고

[Cont. from page 3]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APEC 회원국의 통상대표들은 다자간 무역 및 기타 협력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는 현재 직면한 여러 도전 속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포함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가 중국이 부당한 수출 우위를 점하게 만든 기구라고 보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WTO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관세의 파급 효과

이번 연례 회의를 주최한 한국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준비된 연설문을 통해 “글로벌 경제와 무역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치적·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국 간의 대화를 촉진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산업부가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APEC 정책국장 카를로스 쿠리야마는 지역 수출 전망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있다고 말하며, 그 여파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쿠리야마 국장은 “미국의 관세는 단순히 상품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 때문에 각국 정부가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상황은 아직 4월 초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리어 미국 통상대표는 워싱턴 D.C.에서의 첫 협상 라운드 3주 후 한국 통상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뉴질랜드 통상대표와의 첫 대면 회담도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의 회담도 계획되어 있다.

그리어 대표는 화요일 제주도로 출발하기 전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야심찬 목표를 가진 국가들과 가능한 한 빠르게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사무실은 양자 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번 APEC 회의에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등 여러 회원국의 통상장관 및 대표들이 참석하고 있다.

통상장관회의는 올해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2차 고위관리회의의 일환이다.

APEC은 전 세계 무역의 약 절반,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apec-warns-of-tariff-impact-on-trade-as-china-us-trade-reps-meet/](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apec-warns-of-tariff-impact-on-trade-as-china-us-trade-reps-meet/)

필리핀-한국, 핵심 광물 및 전기차 관련 협정 체결

May 15,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마리아 크리스티나 A. 로케(Ma. Cristina A. Roque)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장관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청인교(Chung In-Kyo) 장관과 핵심 광물 및 전기차(EV)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다고 필리핀 통상산업부가 밝혔다.

DTI는 목요일 성명을 통해, 이번 양해각서(MoU)는 수요일 한국에서 체결되었으며, 무역을 가속화하고 산업 전환을 촉진하며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로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는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개발, 역동적인 산업 부문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비전을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MoU는 재생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핵심 광물의 부가가치 가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양국의 녹색 산업 혁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로케 장관은 목요일 한국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DTI 중소기업(SME) 쇼룸’을 개소했다. 이 쇼룸은 수출 준비가 된 필리핀 제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로케 장관은 “이번 개소는 필리핀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실질적인 조치”라며, “해외에 이러한 물리적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지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국제 바이어들이 원하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5/15/672835/phl-s-korea-sign-deals-on-critical-minerals-evs/](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5/15/672835/phl-s-korea-sign-deals-on-critical-minerals-evs/)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 내 유지 전망

May 16, 2025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A customer buys tomatoes at the Marikina Public Market. The retail price of tomatoes has risen to P360 a kilo,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Michael Varcas

필리핀 마닐라 —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중기적으로 2~4% 목표 범위 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방코 센트랄 ng 필리피나스(BSP)가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속에서도 긴축 통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여지가 더 커졌다.

BSP가 3월에 수집한 민간 부문 전망에 따르면, 2025년 인플레이션은 평균 3.1%, 2026년 3.3%, 2027년 3.4%로 모두 정부의 2~4% 목표 범위 내에 있다.

BSP는 “조사 응답자들은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무역 정책 변화, 악천후, 공공요금, 교통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상승 위험을 보고 있다. 반면 쌀 가격 하락에서 오는 하락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3월 기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아래로 떨어지는 등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되고 있음을 주목했다.

국내 쌀 가격은 관세 인화와 정부의 직접적인 공급 안정 조치 덕분에 글로벌 추세와 함께 하락했다. 연료비와 서비스 관련 비용 상승이 둔화된 것도 전체 인플레이션 완화에 기여했다.

이러한 우호적인 인플레이션 환경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글로벌 경제 환경이 악화되어 국내 경제 성장 전망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BSP는 외부 불확실성과 여전히 제한적인 실질 정책 금리가 디스인플레이션 효과 일부를 상쇄하면서, 2027년까지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정부 목표인 6~8%의 하단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BSP 직원 추정치에 따르면 2025년 성장 전망이 2월의 이전 전망보다 다소 낮아졌다. 이러한 하향 조정은 유가 하락 효과를 상쇄하는 높은 실질 정책 금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적 위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경제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업 활동이 감소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서는 2025년 초 제조업이 개선되었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전망은 관세 인상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에 대응하여, BSP는 4월 10일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25bp 인하하여 5.50%로 조정했다. 이는 보다 관리 가능한 인플레이션 경로와 경제 활동 지원 필요성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추가 완화는 “신중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5/16/2443375/inflation-seen-staying-within-target>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PHOTO HIGHLIGHTS]**2025 JFC Clark International Mixer
May 14, 2025 | Marriott Clark**

2025년 5월 14일,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한국 상공회의소와 PAMURI 회원으로 구성된 공동 외국 상공회의소(Joint Foreign Chambers, JFC)는 메리어트 클락에서 ‘JFC 인터내셔널 믹서 2025’를 개최했습니다. 클락에서 두 번째로 열린 JFC 네트워킹 행사인 이번 국제 믹서는 다양한 배경과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1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참석했으며, 여러 외국 상공회의소 회원과 비즈니스계의 저명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KCCP와 JFC는 올해 3분기에 예정된 마닐라 네트워킹 행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KCCP는 클락 행사 후원사 중 하나인 SM 개발공사(SM Development Corporation, SMDC)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SGV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SGV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 2024 SGV Genset Vantage Co., Ltd. English. Please read.

How will business move faster to slow climate change?

It will take business and government working together to reverse climate change.

Find out how SGV can help you reframe the future to create a better, more sustainable working world.

■ ■ ■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In everything we do, we nurture leaders and enable businesses for a better Philippines.
#SGVforABetterPhilippines
www.sgv.ph



Scan to access
SGV's Sustainability Report, Doing Business and other publications